후원회소식

통권 179호 | 발행일 2006. 9. 19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7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제17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유가협회원 등 시민사회단체 성원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진_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목·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박정덕 선생님을 찾아뵙고(2) 이득형 • 4 / 감옥에서 온 편지 김성환/전욱용/이해길 • 7 / 슬픈 일이 있었어요/오형식선생님 추도 편집부 • 9 / 규탄 성명서 • 10 / 알립니다 • 11 / 기쁜 일이 있었어요 나진숙 • 12 / 기고 맹명숙 • 14 / 시사만평 • 18 / CMS 신청서 • 19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0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3 /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 31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어떠한 정세 변화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흔들림 없어야 하고 6 · 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조건 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회장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합의에 따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녘 고향으로 송환된 지 6년을 맞게 되었다.

신념의 강자들이 휴전선을 넘었던 뒤를 이어 지난 6년 동안 남북 사이엔 놀라울 정도의 인적 · 물적 교류 등 화해 · 협력 사업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6 · 15 공동선언은 외세의 방해 책동과 정부 당국의 주체 의지 부족으로 이행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으며, 최근엔 남북 사이의 당국자 대화마저 끊기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지난 2000년 비전향장기수 1차 송환 이후 2001년 2월 5일 2차 송환을 신청하고 북녘 고향으로 돌아가길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30여 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있다. 대부분이 70~80살의 고령에다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은 이미 다섯 분이 세상을 떠났으며 많은 분들이 이미 거동조차 불편한 채 여러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비전향장기수 1차 송환은 남북 사이의 대결과 불신 시대를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더 나아가 자주와 통일의 길을 넓히는 일이면서 사람 세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인도주의 사업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이루어지기까지엔 그 당위성만큼 순조롭지 않았다. 예로써 당국에선 남북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다른 문제를 연계시켜 마치 상품 거래하듯 주고받고 하는 이른바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역사적 당위성 앞에 당국에서도 끝내는 조건 없는 송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2001년 2월 5일 3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2차 송환을 신청한 것은 6 · 15 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따른 것이었다. 1차 송환 시 통일부 주무부서였던 '인도지원국'에서는 1차 송환 이후에도 송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 2차, 3차 송환도 가능하다 했고 실제로 직접 신청을 받았으며 심지어 가정을 이룬 가족들의 재결합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 통일부는 이른바 '전향자'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여 송환추진위원회 등과 공방을 하게 되었으며 이미 2차 송환 희망자들은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 조건 없이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마침내 국가기관인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조차 사상전향제도의 위헌성과 강제전향 과정의 잔혹한 고문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을 밝히게 되었다. 뒤늦었지만 당국에서도 2차 송환 희망자들을 '비전향장기수'로 정리하게 되어 송환 요건의 자격 문제도 일단락 되었다.

다음으로 다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 위에서 말했던 '상호주의론'이다. 당국에서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과 연계시키려는 대상자는 '전쟁시기 이후 행방불명된 사람'들이었다. 남북이 함께 안고 있는 인도주의 문제로서 생사확인과 상봉사업 등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들 또한 분단과 냉전 시대의 소산으로 남북 사이의 신뢰 구축과 함께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진실 규명 등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로써 국군 포로와 등치되고 있는 27,000여 명의 이른바 반공포로 문제 등을 6·15공동선언 시대에 걸맞게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이 연구하고 합의하는 것에 구태여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합의한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연계하여 사실 규명 없이 주고받는 식의 상호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관련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요청되고 있는 점은 6·15 공동선언 이행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의 유지라 할 것이다. 2001년 2차 송환 신청이 있은 뒤로 지난해까지 통일부는 비공식적으로 위에서 말한 '상호주의'를 말한 외에는 어떠한 구체적 대안이나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2005년 9월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전향장기수 북송가능성을 묻는 여·야 의원(신기남, 박성범)들에게 '인도주의적', '인권', '인도적 도리'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굳이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30일 2차 송환 희망자 고 정순택 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정부 당국은 비록 살아생전에 한 송환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유해송환'이란 이름으로 북측 가족과 관계자에 유해를 인도했었다. 당국에서 '송환'이란 말을 쓴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했다. 바로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당위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예로써 1차 송환 당시만 해도 '북한방문'이란 형식을 갖추었을 뿐이었다.

이제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송환대상자의 자격 문제와 '상호주의론'의 부당함도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의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방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 관계와 주변정세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흔들림 없어야 하고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아무 조건 없이, 지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난 7월 13일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주의 문제를 상정조차 못하고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남으로써 결국 남북 당국자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사태를 시급히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그동안 남쪽에도 북쪽에도 큰물피해가 심하여 최근 정부 차원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결정한 바 있거니와 이를 계기로, 또는 대북특사를 통해서라도 공동선언 이후 한결같이 이어왔던 비료와 식량지원 문제를 비롯하여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미·일의 제국주의적 군사패권주의와 침략 책동에 맞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그리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확고한 민족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 내 일생에서 가장 큰 바람

– 박정덕 선생님을 찾아뵙고 –

이득형 | 운영위원

※지난 호에 실린 내용 가운데 틀린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틀린 내용을 실어서 매우 죄송합니다. –편집자 주

1. 5쪽 위에서 첫째 줄, '전라북도' 곡성이 아니라 '전라남도' 곡성입니다.
2. 6쪽 왼쪽 단 아래에서 열한째 줄, '시동생(이동수)'이 아니라 '시아주버니(이동수)'입니다.
3. 6쪽 오른쪽 단 아래에서 셋째 줄, '친정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싣습니다.

의무 동지는 그런 나를 데리고 추격대를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훗날을 약속하고 동굴에 피신시키고 떠났다. 나는 누구보다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섭섭하지는 않았다. 그 굴은 당시 곡성군당위원장이던 정운창 동지가 발견해 피신처로 사용하곤 하던 곳이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나는 그 동굴에서 나오지 못했다. 일주일에 한번씩 동지가 식량을 갖다 주곤 했으나 나를 데려가지는 못했다. 며칠이 지나자 어디선가 쥐들이 나타나 아무리 쫓아도 멀리 가지 않고 내 주변을 맴돌았다. 쥐가 그토록 무서운 것을 그때 처음 겪었다. 나는 몸을 잘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쥐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한쪽 다리는 성했으나 이상하게도 기운이 없었다. 동지가 식량을 갖다 주었으나 밥을 해먹을 처지도 아니었다. 대개는 날것으로 씹어 먹었다. 많이 먹지도 못해 남겨두면 쥐들이 다 먹어버렸다. 어느 날은 쥐들이 썩어 가는 내 다리로 달려들었다. 부러진 다리에서는 이미 썩은 냄새가 지독했고 고약한 물도 흘러내렸다. 쥐까지 썩은 살가죽에 덤벼드니 잠은 아예 잘 생각도 못했다. 목이 마르면 눈을 먹었다. 아픈 다리, 쥐떼, 공포, 졸음 따위와 싸우며 몇 날이 흐르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나는 너무도 목이 말라(아무리 눈을 먹어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 동굴에서 나와 계곡의 물가로 기어갔다. 갈증을 푸느라 물을 아주 많이 마셨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풀릴 것 같지 않았다. 배가 터질 만큼 마시자 엄청난 졸음이 몰려와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추위도 몰랐다. 아침 일찍 잠들었는데 깨어나니 오후였다. 더는 그 동굴에서 있을 자신이 없고 동지들이 보고 싶어 산을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며 갓 나온 맹감, 풀뿌리, 고동 등을 마구 먹었다.

산을 내려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비를 피해 한 원두막에 들어 비를 긋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에게 들켜 체포되었다. 후에 들으니 지나가는 사람이 냄새가 하도 지독해서 냄새를 찾다가 나를 발견한 것이라 했다. 그날이 1952년 3월 28일이었다. 동굴에서 무려 1달 보름을 지냈다. 다리 살가죽은 이미 거의 다 썩어서 무릎 가까이까지 썩어가고 있었다.

나는 체포되어 문척지서로 끌려갔다. 지서 경찰들은 내 다리가 썩은 냄새에 코를 감싸 쥐고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 나는 그날 구례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서 조사관들 역시 코를 감싸 쥐며 내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다. 구례경찰서 유격대의 부관이 마침 오빠의 친구여서 가족과 연락이 되어 동네 의사를 데리고 와 무릎 아래 18㎝까지 다리를 잘라냈다. 나는 그때

크게 절망했다. "한쪽 다리가 없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며 크게 회의하고 절망했다.

오빠가 50만 원(그 당시 50만 원은 아주 큰돈이다)을 마련해 나를 빼내겠다고 했으나 나는 마다했다. 그렇게 큰돈을 들여 나간들 더는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심정만 자꾸 커졌다.

7년간의 옥살이

나는 순천경찰서를 거쳐 광주특무대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군법재판에 회부되었다. 1952년 9월 7일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구형 15년, 선고 7년을 받고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53년께 남편은 숨겨둔 비상식량을 찾으러 말골골짜기에 갔다가 함께 간 동지가 배반해서 자수하는 바람에 매복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죽음을 당했다.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이후 친지에게 소식을 들었다. 딸은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었다.

나는 광주형무소 생활이 매우 실망스러웠다. 한쪽 다리도 없는 처지로 살아갈 생각에 막막하고 절망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른 동지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내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남보다 잘 살기로 결심도 했다. 이두화, 정규남, 박순애, 박선애 등의 동지들을 그곳에서 만났다. 나는 열심히 뜨개질 기술을 익혔다. 시작했으니 전문가가 되려고 크게 마음먹고 모질게 공부하고 실습했다. 나는 몇 년 후에 뜨개질 전문가가 되었다. 형무소에서 만난 동지들과는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 힘을 나누는 동지로 거듭났다.

1959년 3월 9일, 나는 7년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출소를 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고향을 생각했지만 가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나을 듯하여 가지 않았다. 대신 광주형무소 교목이 소개하여 대전직업교도소로 갔다. 그곳에서 뜨개질 지도 선생을 했다. 대전직업교도소에서 2년여간 살았다.

1961년 가을께 나는 곡성의 고향으로 갔다. 근 10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이었다. 꿈엔들 잊힐 리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잊으려 해도 고향만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어머니가 완곡하게 말했다. "네가 와 있으니 서로 불편하다. 내 걱정 말고 딴 데 가서 살아라." 어머니인들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찢어지는 가슴을 다독이며 고향을 떠났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았다.

1962년에 나는 서울에 있는 친구와 연락이 닿아 서울로 왔다. 처음 의주로에서 생활했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오기 시작했다. 보안관찰대상자라고 말이다.

조국통일, 내 일생에서 가장 큰 바람

1980년께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받을 때까지 나는 사는 일에만 매달렸다. 처음에는 뜨개질 기술자가 크게 이점이 될 줄 알았지만 그보다는 신체조건이나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조건이 더 크게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느꼈다. 예전에 내가 바라던 세상은 더욱 멀리 가버린 듯했다. 편물, 봉제 등의 직업을 전전하며 근 30여 년을 여기저기서 살았다.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저 사는 일에 매달렸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가족이나 예전의 동지들

도 거의 만나지 못하고 살았다.

199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옛 동지들과 연락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선뜻 옛 동지들을 만나지는 못했다. 내가 사는 게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만나기가 어려웠다. 그러면서 또 5년 여의 시간이 훌쩍 흘렀다.

2000년 9월 2일, 온 나라가 난리였다. 물론 그 이전에 송환 소식을 뉴스에서 들었지만 나는 나서지 못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자 비전향장기수가 북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일에 나는 들뜨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확연하게 느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공연히 조급해졌다. 그동안 망설이던 옛 동지들과 연락하고 만나기 시작했다. 겸연쩍고 죄스러움에 내 마음은 진정이 안 됐다. 그래도 만나야 했다. 그동안 눅여두었던 희망도 다잡았다. 희망에 다시 심지를 세우고 불을 붙였다. 옛 동지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모임에도 나갔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집회에는 나가지 못했다. 오른쪽 다리가 없고 나이가 들어 움직이는 데 더욱 힘들어 오히려 동지들에게 짐이 될까봐 나가지를 못했다. 그저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나는 미안하고 죄송하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투쟁할 때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여보, 나 죽으면 꼭 북녘에 가서 사시오." 그러나 남편 죽은 지 벌써 50년이 훨씬 넘었지만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1차 송환 이후 나도 2차 송환 신청서를 썼다. 나는 좋은 일이라 굳게 믿었던 일을 하다 가족 모두를 잃었다.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이라도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가족의 유골을 모두 모셔 가고 싶다. 가서 볕이 좋은 곳에 안치하고 싶다. 좋은 세상은 빈부격차 없고, 불평등 없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이라고 믿는다.

2004년 9월 10일에 나는 심장병 때문에 수술을 했다. 1950년대 빨치산 시절 늘 쫓기고 긴장하면서 살아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심장이 나빠졌다. 처음 듣는 소리나 움직임에도 가슴이 조이고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 잦았다. 어렵게 사느라 수십 년간 신경도 못쓰다가 결국 큰 병이 되었다. 이제는 가슴이 조이고, 바늘로 찌르고, 정신이 아찔해지는 증상은 없다. 심장약을 먹으며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도 받는다.

나는 일찍 몸을 다쳐 그동안 동지들을 만나지 못하고 동지들이 하는 좋은 일에도 동참하지 못한 게 매우 후회스럽다. 훌륭한 동지들이 더 오래 활동하지 못하고 일찍 죽은 것도 참으로 안타깝다.

나는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고 싶다. 살아 있는 동안 조국이 통일되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다. 좋은 세상 이루는 데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하고 싶다.

편집자주

이 글은 박정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재구성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단번에 글몇 줄로 복원해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산 삶에서 감동을 느끼는 데에는 생애 전체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성환 님의 편지

권오헌 선생님께

이곳 독방 쇠창살 넘어 하늘을 보며 소낙비가 쏟아져 주었으면 하는데 하늘은 감질나게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갇혀 지내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시절 한더위가 모질어도 그냥 스쳐지나간 세월처럼 오늘도 희미한 그림자만 남겨 놓겠지요.

강태운 선생님의 자유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구속노동자, 통일운동가, 양심수 등에 대한 사면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강 선생님의 석방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도 혹시나 하면서 장기간 구속되어 갇혀 살고 있는 박태규 동지의 가석방 소식을, 엄기준 동지가 옥담을 허물고 세상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아쉬움과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8 · 15사면 이후 김용직 동지와 박태규 동지가 서신을 보내 왔습니다.

박태규 동지는 "…… 8 · 15 가석방에 대해 무모한 순진함을 곱씹으며 세상을 또 배웠다."라고, 김용직 동지는 "…… 쪽팔리게 노무현에게 기대를 했네요. 겉으로 아닌 척 하면서 은근히 기대를 했으니……. 노무현 엿먹어라 하고 한방을 먹였네요. 허허……."라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워왔다는 집권여당의 실세들이 민주열사들의 뜻을 짓밟고 천민자본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으니 정녕 정권이 시장권력에게, 천민자본에게 넘어갔다는 현 정권의 실토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8 · 15 광복절의 참된 뜻을 왜곡하여 비리경제인을 사면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터에야 더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마치 비리경제인, 비리정치인을 해방시키는 날이 8 · 15 광복절사면이라니 창피한 마음입니다.

권오헌 선생님!

이번 사면에 누락되어 민가협 어머님 등 어르신들께 미안하고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당신들께서 석방투쟁으로도 옥담을 허물지 못한 마음과 여전히 천민자본의 인질로 옥중에 갇혀 있어 어머님과 어르신들의 마음에 계속 누를 끼쳐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젠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별 마음의 동요도 없습니다. 의외로 담담합니다.

저는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여름 한더위 덥다, 덥다 하면서 있었지만 세월은 흘러 입추에 처서가 지나고 늦더위에도 가을의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 선생님 건강하십시요.

민가협 어머님들, 어르신들께서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항시 무탈하시길 빕니다.

선생님의 건투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006년 8월26일 흙 영등포교도소에서

전욱용 님의 편지

양심수후원회 회원님들께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매번 보내주시는『민족21』과 소식지, 영치금 및 편지 등 감사히 잘 받고 있습니다. 제때 답장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탓인가 봅니다. 지난 8월 14일 대구 교도소에 계셨던 강태운 선생님께서 출소하시게 되셔서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 양심수들께서도 하루 속히 풀려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 만기일이 2008년 5월인데 소식지에는 계속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젠가는 제게 베풀어주신 은덕을 꼭 갚겠습니다.

어느덧 제가 수감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2004년 10월 21일 긴급 체포됨)

소식지에 잘못 기재된 것처럼 일찍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6년 9월 10일, 전욱용 올림

이해길 님의 편지

권오헌 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찜통더위 속에서 고생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사과드리며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식지와 책과 후원금은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진작에 감사편지를 드렸어야 도리인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활동하기 불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편지 내용 중 오정숙 동지의 성함이 있어서 함께 투쟁하였던 동명의 동지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 서신에 주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편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직도 몸 상태가 회복이 안 되어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이 있다하여도 앞서 간 열사들의 투쟁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도 그 뒤를 이어갈 것입니다. 모쪼록 회장님의 격려와 아낌없는 사랑을 기다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편지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이 해길 올림
8월 21일 새벽

통일만을 염원하며 살다 가신 오형식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불굴의 의지로 통일만을 염원하며 살다 가신 오형식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된 지 만 6돌이 되는 지난 9월 2일 선생님이 별세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김석형 선생님에 이어 또 다시 통일조국만을 염원해 오셨던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오형식 선생님이 9월 2일 서거했다고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인용 인터넷 언론이 3일 보도했습니다.

비전향장기수의 석방과 후원 사업을 하며 9월 2일 송환까지 책임 있게 송환운동을 해왔던 양심수후원회원들로서는 오형식 선생님께서 통일된 조국을 보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소식에 누구보다도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활짝 웃는 밝은 표정,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확신을 가지셨던 선생님께서 더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에 앞서 일찍 가셨기에 더욱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일제 식민지 지배시대인 1932년 1월 4일 경기도 시흥군 신덕면 신원리(서초구 원지동)에서 가난한 가정의 5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고향에서 소학교 미술부 6학년 때 조국해방을 맞아 경복중학교(현재의 경복고)에 입학 1945~50년까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특히 화학에 관심을 갖고 화학서클을 이끌기도 했으며 집이 어려워 사촌 누이 집에 있으면서 사회진보운동을 하고있는 이 집 어른의 영향을 받아 학생운동을 하면서 47, 8년에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누이 집에만 있을 수 없어 아현동, 시청 앞과 왕십리 등에서 자취를 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선생님의 나이 19세에 전쟁이 일어나자 의용군에 입대, 황해도 정방산 등에서 비무장으로 후방지원사업을 하였으며 뒤에 인민군에 전선입대하여 1957년 제대하였습니다. 제대할 때 노동성으로부터 남쪽 출신자들에게 주어진 정착금을 받아 지방 경리성 기술연구소 부수로 도시행정, 수매, 양정, 도형 등의 일을 하셨고 위생연구소에서 영양분석 기초 실습과정을 밟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위생연구소에서 일하던 이금자 님을 만나 사귀는 한편,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에 입학 학문에 열중하셨습니다. 1958년 출장 중인 이금자 님께 청혼하여 바로 결혼하셨고 선생님은 대학 기숙사에, 부인은 위생연구소에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뒤에 선생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원산농업대학 상급교원으로 일하셨고 3자녀(오광일, 오은하, 오광욱)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통일을 위한 노동자들과의 현장사업을 위해 1969년 남쪽에 오셨다가 6월 5일 체포되어 영등포 미군부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 1심 사형, 2심 무기, 대법원 기각으로 1999년 2월 25일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때까지 31년 옥고를 치르고 출소하셨습니다. 서울구치소, 대구, 대전, 다시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온갖 잔혹한 고문 등 강제전향공작에서도 통일조국에 대한 신념과 양심을 지켜냈습니다.

6·15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신념의 고향에 가시어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이제 통일조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 이렇게 가시다니 그 인자한 모습 다시 뵈올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선생님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2006년 9월 3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조건 없는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촉구한다

9월 2일로 6·15공동선언에 따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녘 고향으로 송환된 지 6년을 맞게 되었다. 지난 6년 동안 남북 사이엔 놀라울 정도의 인적·물적 교류 등 화해·협력 사업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남북 사이에 당국자 대화마저 끊기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가운데 지난 2000년 비전향장기수 1차 송환 이후 2001년 2월 26일 2차 송환을 신청하고 북녘 고향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는 30여 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있다. 대부분이 70~80살의 고령에다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이미 다섯 분이 세상을 떠났으며 많은 분들이 거동조차 불편한 채 여러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2001년 2월 5일 3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2차 송환을 신청한 것은 6·15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따른 것이었다. 1차 송환 때 통일부 주무 부서였던 '인도지원국'에서는 1차 송환 이후에도 송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 2차, 3차 송환도 가능하다 했고 실제로 직접 신청을 받았으며 심지어 가정을 이룬 가족들의 재결합 문제까지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뒤 통일부는 이른바 '전향자'는 송환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송환추진위원회 등과 공방을 하게 되었으며 이미 2차 송환 희망자들은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 조건 없이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마침내 국가기관인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조차 사상전향제도의 위헌성과 강제전향 과정의 잔혹한 고문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을 밝히게 되었다. 뒤늦었지만 당국에서도 2차 송환 희망자들을 '비전향장기수'로 정리하게 되어 송환 요건의 자격 문제도 일단락되게 되었다.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이른바 '상호주의'와 연관하여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당국이 상호주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전쟁시기 이후 행방불명된 사람'들이다. 이는 남북이 함께 안고 있는 인도주의 문제로서 생사확인과 상봉사업 등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들 또한 분단과 냉전 시대의 소산으로 남북 사이의 신뢰 구축과 함께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진실 규명 등 인도주의 차원에서 나름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관련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요청되고 있는 점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의 유지이다. 2005년 9월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전향장기수 북송가능성을 묻는 여야 의원(신기남, 박성범)들에게 '인도주의적', '인권', '인도적 도리'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굳이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30일 2차 송환 희망자 고 정순택 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정부 당국은 비록 살아생전에 한 송환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유해송환'이란 이름으로 북측 가족과 관계자에게 유해를 인도했었다.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송환대상자의 자격 문제가 정리되었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주의론'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다. 이에 우리는 정부당국의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방침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국제 관계와 주변정세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흔들림 없어야 하고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아무 조건 없이, 지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2006.9.1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9월 산행 – 수락산에 오릅니다.

■가는 날 : 9월 17일 (일) 오전 10시
■모이는장소 : 7호선 수락산 역(안에서)
■가는 곳 : 수락산
■준비물 : 간단한 도시락과 회비 3,000원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일 시 : 9월 12일 (화) 오후 6시
■장 소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광화문우체국 6층)
■작품명 : 민족과 운명 제26부 (노동계급 편 제2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95년제작, 98분 상영)
■줄거리 : 전쟁에서 귀환한 죄로 괴로워하는 귀환병들을 포용하는 강선 직강소의 강태관 직장장과 주변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이다.

※문의 : 한찬욱(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북녘 큰물 피해복구 돕기와 콩우유보내기운동에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합니다.

이번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북녘의 동포들이 큰 피해를 입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형제애와 동포애로 작은 힘이나마 함께 모아 북녘동포들이 힘겨워 하고있는 수마가 할퀴고 간 상흔을 보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수후원회의 특별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개중인 '북녘어린이콩우유보내기운동' 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핏줄 한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양심수후원회는 북녘 수해지원과 어린이들을 돕는 운동에 지속적으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후원계좌 : 제일은행 159-10-001411
■예 금 주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지금까지 성금을 보내주신 회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 싣겠습니다)

김지영 1,000,000원	탁무권 1,000,000원	박점식 1,000,000원
권오헌 1,000,000원	조명희 500,000원	장경욱 500,000원

비전향장기수 허영철 선생님께서 구술 · 기록한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출간

28일 철도웨딩문화원에서 허영철 선생의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보리출판사 김용심, 조은영 씨와 함께한 허영철 선생.

[사진 | 통일 뉴스 김주영 기자]

"왜 열심히 일 해야 하나?"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공산)당원이라면 비록 조직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책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겠다. 내 모습이 곧 당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36년 반평생을 0.75평 독방에 갇혀 있다 풀려난, 지난날 조선노동당원이 70살이 넘은 나이에 183세대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질 아파트 경비 일을 성실하게 해 온 일에 대한 답변이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의 과거 신분에 대해 결코 도덕적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자기검열 정신이 몸에 배어 있음을 표현한 한 대목이다.

저자는 식민지시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약관의 나이로 함경도 단풍선 철로공사장부터 바다 건너 일본 북해도 유바리 탄광까지 여기저기에서 한 노동 체험을 통하여 노동의 본질과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의 민족적 모순을 깨우쳤다.

또한 해방된 조국에서는 새로운 외세의 개입으로 자주독립 · 통일정부수립이 좌절되면서 남과 북에서 인민위원장 등 일선 행정업무를 다 했다. 비전향장기수 허영철 선생님은 갈라진 조국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젊음의 열정을 다 바친 일로 오랜 옥고를 겪어야 했다. 선생님께서 구술하고 기록했으며 '보리출판사'에서 펴낸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는 선생님의 개인사이면서 우리 민족사의 핵심 단면이기도 했다.

이 책은 선생님께서 치열하게 살아오신 삶을 연대순으로 하여 모두 8장으로 엮였으며 매 장마다 편집자와

나눈 '마주이야기'와 주요사건 · 인물 등에 대해 남과 북에서 표현한 '주'를 달았으며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시대와 우리 현대사를 병렬시킨 연표 등이 있다.

제1장 '팔각사와 아오지(1920~1945)'에는 1920년 11월 5일 선생님이 전북 부안군 보안면 부곡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식민시대의 삶과 노동체험 사회주의 사상의 접속 시기 등이 그려져 있고, **제2장 '노동 당원과 착한 사람**(1945~1950)'에는 해방된 조국에서 자주 정권 수립을 위해 조선 노동당원으로 활동한 열정적 활동 상황과 시대상황이 그려져 있으며, **제3장 '빨치산과 인민위원장**(1950~1952)'에는 전쟁의 참상과 해방 지역에서 군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된 내용, 전술적 후퇴와 촌각의 차이로 생사가 판가름나는 빨치산 활동, 중국 동북 지역까지 가면서 했던 간부 교육과정과 장풍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했던 일선 행정업무 상황 등이 나와 있다. **제4장 '영웅과 간첩**(1955~1991)'에는 자주통일의 소임을 맡아 소환되어 남녘에 내려와 체포되는 과정과 통일조국에 대한 신념, 양심을 지켜내는 감옥생활이, **제5장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1991~2006)'에는 비전향으로 출소하여 70살이 넘은 노인으로 무슨 일이든 피하지 않고 하면서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도덕성을 지키면서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 등 당면한 민족적 과제를 다 하는 빈틈없는 삶의 역정이 그려져 있다.

이 책의 어느 곳에서도 선생님은 통일조국과 이상사회의 이념인 사회주의에 대한 낙관과 신념은 철저했고 80성상을 살아오신 일들을 어제오늘 겪은 것처럼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놀라운 기억력으로 기술하고 있다. 평소 말씀이 적으시고 남에게 궂은일을 결코 청하지 않지만 자본주의의 병폐와 제국주의의 야만성은 가차 없이 비판하셨다. 역사발전과 사회진보에 대해서 서두르지도 않지만 결코 게을러서도 안 되며 자기 신념에 대해 한결같은 삶의 지표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역사의 발전과정에는 특수한 계기가 있다. 좀 더 높은(발전된) 사회로 가기 위해선 우리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한편 28일 용산 철도웨딩문화관에서 비전향장기수 허영철 선생님의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출판기념회가 비전향장기수와 사회단체 성원 등 250여 명이 함께하여 열렸다.

책을 펴낸 보리출판사 측의 간당한 경과보고에 이어 통일광장 권낙기 공동대표의 사회로 보리출판사 정낙목 대표의 인사말,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오종렬 전국연합상임의장 등이 축사를 했고, 이어 옥중동지 양희철 성생이 축시를 낭송했다. 책을 엮어 내는데 실제 일을 다 했던 보리출판사 김용심, 조은용 씨가 책을 내기까지 선생님과 지냈던 회고담을 했고, 이어 선생님의 최근 생활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으며 허영철 선생님이 인사말씀을 했다. 또한 허정문 씨의 〈심장에 남는 사람들〉 노래와 노래패 '우리나라'의 축하공연도 있었다. 2부 행사로는 음식을 나누며 먹으며 보리출판사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문예공연이 있었다.

갯벌생태계 복원를 위한 생태학적 원리 : 생태지역주의(Bioregionalism)

맹영선 | 회원,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은 새만금 간척지 사업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4월 21일 새만금 물막이 공사는 완료되었고, 그 후 새만금 갯벌의 죽음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오랜 세월 해와 달, 바람과 강물 그리고 바다의 조석간만의 차이로 인해 만들어진 바닷가 넓은 벌판 갯벌, 갯벌은 수많은 갯벌 생물들의 산란장이고 양육장이며 번식장이고 서식지이다. 더욱이 새만금 갯벌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구역(estuary) 갯벌이다. 하구역 갯벌은 그 풍부한 먹이 때문에 생물계 먹이 사슬(food chain)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다. 갯벌에서 원생동물들은 갯지렁이의 먹이가 되고, 갯지렁이는 갈매기와 도요새, 물떼새 등 철새들의 먹이가 된다. 또한 갯벌 어류들은 바다오리류의 먹이가 됨으로써 포식자 수리류가 그들을 찾아오게 만든다. 이러한 갯벌생태계(ecosystem)가 파괴되면, 수많은 갯벌 생물들의 집단 폐사와 개체수 변화 더 나아가 멸종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수많은 갯벌생물들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시켰다.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이제 겨우 두 달, 새만금은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II. 생태지역과 생태지역주의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갯벌생태계가 파괴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였다. 그 중 하나가 보전론과 개발론의 논쟁이 너무 지나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개발론자들은 간척을 통해 농경지나 산업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갯벌보다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주장하였고, 보전론자들은 갯벌의 탁월한 정화능력과 어패류의 주산지로서 새만금 갯벌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농경지보다 월등히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자연을 생명이 없는 (소중한)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연의 도구적 가치만을 인정하는 인간중심적 자연관의 결과이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자연관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개발-보전의 논쟁에서 개발론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돈(경제)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새만금 갯벌에 생육하는 그 수많은 갯벌 생물들의 생태학적 지위(ecological niche)를 인간의 경제 논리로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생태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경제학에 생태학을 통합시켜야만 한다.

분명한 것은 개발론 뿐만 아니라 보전론 조차도 "실제 존재들, 즉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의 고통을 마치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 같이 실감나게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는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의 고통을 인식/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지구를 인간만이 아닌 다양한 생명체들의 터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관점을 생태지역(bioregion)적 관점이라 한다. 그는 사람이 한 지역에 정착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생태지역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지역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 환경을 잘

알고, 그곳에서 조화롭게 그리고 책임 있게 사는 것이며 그 지역을 파괴로부터 지켜내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지역은 1974년 알렌 반 뉴커크(Allen Van Newkirk)가 「생태지역 : 인간 문화를 위한 생명적 전략」이란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생태지리학적 개념이다. 그는 생태지역을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들로 이루어진 확인 가능한 지리적 지역으로서 비교적 자립적인 지역"이라고 정의하였다. 각각의 생태지역들은 '비교적' 자립적이지만 공기와 물이 전지구의 모든 지역을 순환하기 때문에 지구 위에서 완전히 자립적인 지역은 없다. 궁극적으로 모든 생태지역들은 상호의존적이다. 커크패트릭 세일(Kirkpatrick Sale)은 생태지역을 "인간의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명 형태와 지질학 및 생물상에 의해 정의되는 지역, 달리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에 의해 관할되는 지역"이라고 정의하였다. 사실 인간에 의한 지구의 정치적 지역 분할은 자연 생태계를 무시한 것이다.

지구를 국가들의 공동체로 간주하는 것은 인간들만의 생각이다. 지구는 우선적으로 생태지역들이 상호-연관된 체계이며, 한 지역의 경계는 산맥이나 강 그리고 그곳에 서식하는 동식물 생태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테파니 밀즈(Stephanie Mills)는 "생태지역의 주민은 인간을 넘어선다"고 말한다.

환경운동가 피터 버그(Peter Berg)와 생태학자 레이먼드 대스먼(Raymond Dasmann)는 생태지역 개념을 생태지역주의(bioregionalism)로 확대시켰다. 생태지역주의는 생태지역 개념에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의 "땅의 윤리(The Ethics of Land)"를 적용한 것이다. 레오폴드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인간종(種)이 만물의 영장

이 아니라 생물권의 한 구성원일 뿐이며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진화라는 대장정을 여행하는 여행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땅의 윤리는 인간을 '지구공동체(earth community)의 정복자에서 그 공동체의 평범한 주민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버그와 대스만은 이렇게 인간이 생태지역의 주민이 되는 과정을 "재정착" (reinhabitation)이라고 표현한다. 재정착은 "과거에 인간이 약탈/파괴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토착적으로 살기 위한 학습"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생태지역 안에서 약탈자(takers)가 되지 않고 그곳의 진정한 주민이 되는 것, 즉 "토착적 삶" (living-in-place)을 사는 것이다. 토착적 삶이란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다. 지금 이러한 토착적 삶이 약탈적 문명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결국 생태지역주의는 전 지구적 단일문화, 즉 세계화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지역 문화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버그와 대스먼의 생태지역주의는 다양한 생물종의 분포, 분수령의 지계, 토양의 유사성 등에 그 바탕을 두며, 인간이 자신이 사는 생태지역의 자연적 특성에 맞추어 조화롭게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생태지역주의의 기본 원리는 생태지역과 실천적 땅의 윤리 그리고 지역문화에 대한 존중이다.

한편 게리 스나이더는 생태지역주의를 다시 보기(re-envisioning), 다시 정착하기(re-inhabitation), 복원하기(restoration)로 정리한다. "다시 보기"는 한 생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의 인간-자연의 관계망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며, "다시 정착하기"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토착민이 되는 것이다. '다시 정착하기'는 '다시 보기'를 전제로 한다. 즉 어떤 특정 지역에 '다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생태계를 잘 관찰해야만 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을 생태지역적 관점에서 잘 관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지역 토착민이 되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 토착민이 된다는 것은 북미 인디언들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과 상당히 유사하다. 사실 생태지역주의는 북미 인디언 영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 생태영성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복원하기"는 파괴된 생태계와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III. 토마스 베리의 생태지역주의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역시 지구의 다양한 생태지역들이 자기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간들이 지구를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생태계 문제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베리는 생태지역의 기능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스스로 번식하는 기능이다. 각각의 생물 종은 그 서식지와 이주 경로 그리고 생명공동체 안에서의 생태학적 위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을 그들의 서식지로부터 쫓아내고 그곳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구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해치는 것이다. 인간이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 생명체들에 인간 생명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② 스스로 영양소를 공급하는 기능이다. 지구공동체는 엔트로피(쓸 수 없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생태계를 가동하고 있다. 자연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무용하거나 유독한 폐기물과 분해 불가능한 쓰레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구공동체의 이러한 기능 안에서 인간 삶의 모든 분야들, 즉 식량과 농업 그리고 상업과 경제 등을 가동시켜야만 한다. ③ 스스로 교육하는 기능이다. 행성 지구는 46억년이라는 진화 과정을 통해 독특한 생태지역들을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 문화적 양식으로 스스로 교육해 왔다. 그 엄청난 시간 동안 지구의 생태지역들은 현존 생태계를 설계하기 위하여 수십억 번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지구의 생존을 위하여 우리 후손들을 제대로 교육하려면 자연 세계로부터 배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④ 스스로 통치하는 기능이다. 모든 생태지역 공동체 안에는 통합적이며 기능적인 질서가 존재한다. 이것은 구성원들 각자를 생태지역 통치에 참여하게 하고 각자에게 고유한 자기 생명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계절에 따라 표현되는 생명력이 이 통치를 주도한다. ⑤ 스스로 치유하는 기능이다. 생태지역 공동체는 특별한 재생 능력을 그 자체 안에 갖고 있다. 우리가 지구공동체의 규율에 복종하고 치유하는 공동체의 능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치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⑥ 자기-실현 기능이다. 지구공동체는 자연 세계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자기를 실현한다. 인간 역시 각 지역 공동체를 통해 독특하게 표현되는 우주의 신비를 의식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인류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종교적 전례, 마을의 축제, 정치적 집회,

여러 가지 놀이 양식 그리고 음악과 춤을 비롯한 모든 예술로 표현된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각 생태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발생한다.

토마스 베리는 생태지역을 구성하는 각 생태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 생태계가 자기 기능들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태지역 공동체 안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본다. 베리는 다양한 생태지역의 기능들 안에서 인간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어떻게 수용하고 수행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본다. 인간 역시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이므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생태지역의 안녕(安寧)을 추구해야만 안녕을 꾀할 수 있다.

IV. 나가는 말

"저는 죽어가는 새만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고통 받고 죽어가는 새만금의 생명들과 어민들, 그들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새만금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 성직자가 필자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필자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즉각적으로 '자연의 파괴와 재생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비유'하는 생태신학자 매튜 폭스(Matthew Fox)가 떠올랐다.

폭스는 '어머니 지구를 죽이는 것'이 우리 시대 가장 큰 범죄이며,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 종이 행하고 있는 이 범죄에 그리스도교 교회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인간들로 하여금 이 범죄를 그만두게 하고 지구가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 성찰해야만 한다. 우리는 파괴된 하나의 생태계가 또 다른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생태학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새만금 갯벌생태계가 파괴되도록 수수방관 하였다. 지금 우리 눈앞에 수많은 갯벌 생물들이 죽뻘(죽어가는 갯벌)위에 썩어가는 자신의 몸을 올려놓고 인간들이 그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새만금 갯벌이 마지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다.

갯벌 생태계 복원(생명공동체 치유)을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변화의 기본 방향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에서 생물중심주의(Biocentrism) 나아가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의 인간중심적 자연관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중심적 자연관을 변화시킬 때만이 우리의 의식 체계와 생활양식 그리고 사회제도가 전면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 이외의 다른 자연적 존재들의 고통을 내 가족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생태학적 감수성(ecological sensitivity)을 요구한다.

또한 갯벌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태학적 원리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파괴된 새만금 갯벌에 인위적으로 다른 생물들을 양식한다 해도 그들이 그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물이 빠지거나 들어차서 파괴되어진 습지'에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회복시키고 토착 식물을 다시 심으면 동물들도 다시 서식하기 시작한다'는 복원생태학(restoration ecology)의 보고가 있다. 이제 우리는 파괴된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갯벌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실히 배워야만 한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생태지역에서 '땅의 윤리'를 실천하며 지역문화를 존중하는 토착적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생태지역주의이다. 생태지역주의는 현재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성렬 통일만평 2006.7.25

장봉군 한겨레그림판 2006.7▶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 FAX : 02-888-4470 ▪E-mail : yangsimsu@hanmail.net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기타( )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6년 9월 15일 현재 총 132명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김종덕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2006-08-21	공동공갈			수원구 310	미결
조준행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2006-08-21	공동공갈			수원구 330	미결
이영록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2006-08-21	공동공갈			수원구 308	미결
이극문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12	집시			대구구 81	미결
윤종대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20	업방			대구구 52	미결
신현범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7	집시			대구구 72	미결
문강호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7	집시			대구구 99	미결
문정우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6	집시			대구구 68	미결
조희구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2	집시			대구구 86	미결
이길우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6	집시			대구구 91	미결
장장원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2	집시			대구구 74	미결
김은수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6	집시			대구구 71	미결
오상룡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2	집시			대구구 70	미결
이상경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2	집시			대구구 73	미결
장광수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6-15	집시,공갈,갈취			대구구 75	미결
이수동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8-16	집시			대구구 60	미결
한인석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8-16	집시			대구구 51	미결
이정래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8-16	집시			대구구 53	미결
조기현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6-15	집시,공갈,갈취			대구구 79	미결
이성우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7-06	집시			대구구 96	미결
하동현	노동자	건설노조(충남)	노조활동 관련	2006-06-16	업방			천안구 5554	미결
이옥선	노동자	건설노조(충남)	노조활동 관련	2006-06-16	업방			천안구 5057	미결
이인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30	미결
권영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23	미결
주운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24	미결
남병섭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25	미결
박득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26	미결
장사욱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27	미결
황재일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29	미결
권석공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21	미결
박재홍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31	미결
이희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32	미결
김삼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33	미결
이종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34	미결
이정모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07	미결
김운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28	미결
유철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19	미결
정형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18	미결
장칠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17	미결
최영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16	미결
신수복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15	미결

박성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14	미결
윤재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13	미결
김정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12	미결
김영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11	미결
김성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10	미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35	미결
황병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08	미결
박대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22	미결
김윤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06	미결
김도섭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09	미결
좌철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63	미결
박정진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54	미결
김선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55	미결
이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56	미결
공창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57	미결
김달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58	미결
김상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51	미결
고진덕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61	미결
박성훈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60	미결
장재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8-14	집시			포항북부서	미결
정은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36	미결
박성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20	미결
진남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하중근 사망 규탄집회	2006-08-17	집시			포항교 3071	미결
지갑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8-23	업방,폭력,집시			포항교 3072	미결
김영주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8-31	업방,폭력,집시			포항교 3073	미결
황성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59	미결
김종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44	미결
박훈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62	미결
김명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40	미결
심진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39	미결
김병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38	미결
김용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43	미결
김봉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41	미결
정승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37	미결
김학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42	미결
권일영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45	미결
최진동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46	미결
박웅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47	미결
정갑도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48	미결
김중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49	미결
진덕원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50	미결
유기수	노동자	건설연맹	8.9 노동자대회(포항)	2006-08-14	집시			포항북부서	미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12-29	업방,폭력	10월+8월	2007/06	부산교 874	기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7-05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8/01	대구교 52	기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7/10	대구교 86	기결
이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크레인시위	2005-05-17	업방,폭력	1년6월	2006/10	진주교 6	기결
박태규	노동자	금강화섬	노동자대회(11.9)	2003-11-12	집시,폭력	1년6월+1년6월	2006/11	부산교 1406	기결
이영철	노동자	덤프연대	파업	2006-06-10	업방,집시			인천구 5030	미결

최은민	노동자	민주노총	하중근 사망 규탄집회	2006-08-17	집시			포항교 40	미결
채근식	노동자	민주노총	8.9 노동자대회(포항)	2006-08-14	집시			포항 북부서	미결
이태영	노동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경기) 활동관련	2006-09-14	공동공갈			수원구	미결
이영도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8.9 노동자대회(포항)	2006-08-14	집시			포항 북부서	미결
전필원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8.9 노동자대회(포항)	2006-08-14	집시			포항 북부서	미결
김용직	노동자	민주노총(충북)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2005-06-13	집시,특공	1년6월	2006/12	청주교 792	기결
황우찬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하중근 사망 규탄집회	2006-08-17	집시			포항교 3070	미결
송무근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53	미결
김병일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포항교 3052	미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2005-02-22	명예훼손,정통법	3년+2월+6월	2008/10	영등포교 13	기결
엄기준	노동자	㈜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2003-12-10	집시,폭력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2999	기결
황윤석	노동자	코오롱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	2006-03-27	집시,폭력			서울구 13	미결
최일배	노동자	코오롱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	2006-03-27	집시,폭력			서울구 22	미결
송진만	노동자	코오롱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	2006-06-07	업방,특공			서울구 194	미결
이수종	노동자	타워크레인기사 노조	불법파견철폐 고공농성	2006-06-12	업방,집시	10월	항소중	수원구 313	미결
신재교	노동자	하이닉스 하청노조	노조활동 관련	2005-10-21	특공,치상	1년6월	항소중	대전교 2084	미결
오지환	노동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2006-07-17	민사법	6월	항소중	대전교 6916	미결
권수정	노동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2006-07-17	민사법	8월	항소중	대전교 70	미결
김준규	노동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2006-07-17	민사법	6월	항소중	대전교 6734	미결
정경진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노조	확약서이행촉구 크레인 농성	2006-05-15	업방,폭력			서울구 76	미결
조대익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노조	확약서 이행촉구	2006-05-15	업방,폭력			서울구 90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노조	대량해고반대 농성	2005-11-05	특공,치상	1년6월	2007/05	순천교 1695	기결
김지태	농민	대추리 주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2006-06-05	업방,집시,특공			평택구 201	미결
최재영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3-06	병역법	1년6월	2007/09	진주교 1204	기결
전욱용	재야	개인	북한방문	2004-11-18	국보	3년6월	2007/05	광주교 5009	기결
김훈태	재야	교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5-22	병역법	1년6월	2007/11	논산구 370	기결
이승규	재야	다산인권센터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7-28	병역법	1년6월	2007/01	김천교 569	기결
최희정	재야	민권연구소	이적표현물	2006-08-18	국보			서울구 241	미결
김영진	재야	민주노동당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7	의정부교 1723	기결
우동철	재야	범민련(서울)	회합통신 미수	2006-07-18	국보			서울구 192	미결
문상현	재야	사회당(서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7-19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주교 844	기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2004-06-20	특가법	1년+6월	추기기소	춘천교 451	미결
최 진	재야	작은 누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6-28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송제2교 1329	기결
이용석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8-18	병역법			인천구 2232	미결
김태훈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5-17	병역법	1년8월	항소중	서울구 1494	미결
홍경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5-20	특공,공방	1년6월	2006/10	청주여 15	기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3년	상고중	서울구 10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3년	상고중	안양교 1588	미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2년6월	상고중	서울구 20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3년	상고중	서울구 62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5-03	화염병,치사	6년	상고중	서울구 61	미결
오기성	재야	평택지킴이	대추리 불법검문	2006-08-09	특공			평택구 215	미결
오정록	재야	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8	서산구 103	기결

01

낙성대 '만남의 집'에 새 봉사원으로 관악자활센터에서 8월 1일자로 김용미 님을 파견해 주셨습니다.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과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대표, 김환진 간사가 새로 오신 봉사원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만남의 집'의 생활규범 등을 이야기하며 서로 뜻을 모아 생활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 탐방단'이 6박 7일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산 미공군기지(R-55)를 탐방하고 정문 앞에서 미군강점 61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마지막 목표지인 팽성군 대추리로 가다. 겹겹이 막아선 경찰 포위망을 뚫고 대추리로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평화공원에서 699회 주민촛불문화제를 열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는 국정원에서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KAL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발표를 하다. 발전위는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발표한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의 기본 내용은 사실이나 3개의 개별사건을 기계적으로 결합하여 간첩단사건으로 오인하도록 발표하여 대통령선거 국면에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다. 'KAL858기 폭파사건'에서도 안기부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이 사건을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공작) 계획문건을 확인했다."며 "1987년 12월 15일까지 김현희를 압송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확인했다."고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행태들이 KAL858기 폭파사건 내용의 본질적 내용을 은폐 · 왜곡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을 기획 공작했거나 사전에 인지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다. 이에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대책위는 공동명의의 반박성명을 내고 "사건 당사자인 김현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발표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다.

6 · 15공동선언실천북측위는 남측위에 팩스 전문을 보내면서 "최근 례년에 없는 폭우로 북과 남의 인민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남북해외대표들이 축전을 벌이는 것이 여러모로 고려된다고 인정한데 따라 올해 8 · 15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라며 남측위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행사취소 이유를 설명해 왔다고 남측위가 밝히다.

02

팽성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팽성주민대책위 주최로 '주택강제철거반대 김지태 위원장 석방 미군기지이전 전면재협상 우리 땅 지키기 700일째 촛불문화제'가 열리다.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한총련 대학생 30여 명이 모여 '19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발대식'을 갖고 15박 16일의 통일대장정에 들어가다. 이들 통일선봉대는 서군과 동군으로 나누어 서군은 대전-청주-광주 · 전남-군산-전주-천안-아산-수원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며 동군은 진주-마산 · 창원 · 밀양-김해-부산-대구-구미-춘천-원주를 거쳐 서울로 돌아와 8 · 15통일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03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전국민중연대 등 9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레바논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하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학생, 여성, 청소년, 어린이, 민주노동당 등이 함께하는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위한 2006 통일선봉대 공동 발대식'을 갖고 한미FTA 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침략적 한 · 미동맹해체 등을 위해 통일대장정에 들어가다. 각 부문, 지역 단체 등 2700여 명이 함께하는 선봉대 총대장에는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동군대장에 김수남 통일연대 고문, 서군대장에 범민련 남측본부 김광옥 부의장이 맡았음.

전국연합 회의실에서 6기 통일연대 3차 대표자회의를 열다. 보고에 이어 안건으로 전민특위 가입승인, 7. 27~8. 15 기간 사업 등 의결과 8 · 15대회와 관련된 분담금 책정논의, 남북수해지원사업, 을지포커스렌즈훈련 대응투쟁을 논의하다.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27회 목요집회가 열리다.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대강당에서 6 · 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제6차 공동대표자회의를 열다. 5차회의 보고에 이어 6 · 15민족통일대축전보고, 8 · 15 통일행사와 아리랑참관사업 관련 보고,

2006년 공동대표자 회비현황 보고 등이 있었고 이어 남북수해복구 지원대책, 8 · 15행사 추진안,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남북수재민에게 겨레의 따뜻한 손길을 내밉시다' 등 채택하다.

04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권오헌, 강민조, 박중기, 정동익, 정종렬 등 상임공동대표단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송기인 위원장과 김동춘, 김갑배, 이영조 상임위원 등을 면담하고 과거사법 시행령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고 조사인원을 확충하여 접수된 각종 과거 피해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과 연세대 총학생회는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연대항쟁 10주년 기념대회추진 기자회견' 을 열고 오는 13일 연세대에서 기념대회와 연대항쟁 10주년 기념토론회, 백서발간, 연대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사업 등을 발표하다.

05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 고 권재혁 선생 묘소에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연대' 가 주관하는 '민주통일열사 권재혁 선생 묘비제막추도모임' 이 진행되다. 추모연대 김명운 집행위원장 진행으로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이 인사말, 사회자가 추모비건립 경과보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이 약력소개, 이일재 당시 전략당사건 동지가 추도사 등을 하였고 참가자들이 분향 · 헌화를 하였다. 권재혁 선생은 1925년 경남 산청에서 출생, 1950년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를 졸업 1956년 미 몬타나 주립대학과 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다시 1957년 미 오리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함. 4 · 19혁명 이후 육사 경제학 교수, 건국대 경제학 교수 등 역임. 1964년 한일회담 반대, 1968년 이른바 '남조선해방전선략당사건' 에 조작되어 1969년 11월 4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법살인당했음.

06

관악구 봉천1동에 사시던 안학섭 선생님께서 사시던 집이 경매되어 임시로 낙성대 '만남의 집' 으로 오셨습니다.

07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는 이북의 큰물피해와 관련 7월 17일 현재 집계로 549명이 사망하고 295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3,043명이 부상당했다고 평양발로 보도하다. 살림집 피해는 16,667동 28,747세대이며 그 중 4,438동(7,847 세대)가 완전 파괴, 3051동(5,282세대)이 부분 파괴, 9,178동(15,618세대)이 침수되었으며 1,180동의 공공건물과 생산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하다. 이외에도 총 피해면적은 23,974정보이며 침수된 경지는 16,194정보, 매몰된 경지는 4,250정보, 유실된 경지 3,530정보이며 사회기반시설 피해는 636개소 총 168㎞, 47,226㎡에 달하며 202개의 다리가 완전 또는 부분 파괴 되었다고 하다.

'야스쿠니반대 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는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야스쿠니반대 공동행동 기자간담회' 를 열고 11일~15일까지 진행될 '8월 국제공동촛불행동' 일정을 발표하다. '촛불행동' 은 일본국회와 긴자 등지에서의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13일 야스쿠니신사앞까지 촛불행진, 14일 메이지공원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 15일 추모행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다.

08

참여연대 등 25개 평화 · 인권 · 여성 시민사회단체는 뉴국제호텔에서 '평화 · 인권 · 여성 · 대북지원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을 열고 정부당국의 비료,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를 촉구하다.

프레스센터 12층 언론재단 연구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과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제82회 기자포럼-대북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가 열리다. 포럼에서 이장희 외대 교수, 연합뉴스 장용훈 북한전문 기자, 동국대 이철기 교수 등은 한결같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규탄하고 미사일 발사와 관련 쌀과 비료 인도주의사업을 연계한것을 비판하다.

09

6 · 15공동선언실천북측위는 남측위에 전통문을 보내 큰물피해 복구지원에 나선 남측단체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북측이 필요로 하는 피해복구물자를 보내달라고 하다. 필요물품으로는 시멘트 강재 등 건설자재들과 화물자동차 등 건설장비, 식량, 모포, 의약품 등을 기본으로 하여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통일연대, 서총련 등 서울지역 19개 시민 · 사회 · 정당단체는 용산 국방부 앞에서 "8 · 15 61돌 맞이 미군없는 아름다운 서울 대행진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부담, 평택미군기지이전 전면 재협상, 한 · 미FTA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등을 요구하며 9일~11일까지 서울 미군기지 주변 26㎞를 도는 자전거 대행진을 한다."고 발표하다. 김규철 서울통일연대 대표의 여는 말, 민주노총 고종환 서울본부장,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등 결의발언과서총련 김하얀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10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제14기 한총련 주최로 "국가보안법폐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무조건적인 수배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서총련 김하얀 의장 사회로 이규재 범남본 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등 국가보안법폐지, 이적규정철회, 수배해제촉구 발언, 정치수배학생으로 1999년 광운대 이무진 부총학생회장, 2001년 건국대 나진숙 총학생회장 등 사례발표, 장송회 한총련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제628회 목요집회가 열리다.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만나 이북 수해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식량과 복구지원 장비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또한여 · 야 5당 원내대표들도 국회에서 환담을 갖고 집중호우로 인한 북의 피해에 대해 민족적 ·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다.

11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등 사회단체 회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 등 환수촉구 발언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주선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린이 민족통일 대행진단"이 다시 꾸려져 평택미군기지확정 예정지인 팽성읍 대추리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다. 어린이행진단은 "대추리 역사관" 등을 견학하고 주민촛불문화제에 함께 했음.

12

평택역광장에서 평택범대위 주최로 "강제철거중단! 미군기지확장 전면재협상! 전쟁기지 강요 미국규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촛불문화제"가 열리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통일선봉대 등 1,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평택범대위 최한석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 통일선봉대 각 부문대표와 한상렬 총대장의 결의발언, 통일선봉대 문예패의 문예공연, 재미동포청년들 결의발언, 어린이 통일선봉대 노래와 춤 등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팽성주민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가 이상렬 도두리 이장의 인사말로 모두 마치다.

서울지역 19개 단체가 함께하는 "미군없는 아름다운 서울"(미없서) 행진단 200여 명은 대행진 3일째를 맞아 "포항지역 건설노조 상경투쟁단" 450여 명과 함께 경찰청으로 행진 고 하중근 열사에 대한 경찰폭력을 규탄하고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다.

13

연세대 대운동장에서 범청학련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한총련 학생들과 통일연대 소속회원 등 1,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청년학생 9일 낮 9일 밤 연대항쟁 10주년 기념결의대회"가 열리다. 사전 문예공연에 이어 이성호 연세대 총학생회장의 초청 인사말,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의 대회사,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연대사, 연대항쟁 당시 한총련 4기 의장이었던 정명기 씨의 회고결의발언, 연대항쟁 당시의 투쟁영상 상영, 장송회 14기 한총련 의장의 결의발언, 가극단 "미래"의 연대항쟁을 재현한 상황극, 1996년 당시의 한총련 중앙문예단과 2006년 중앙문예단의 합동공연 등이 있었음. 결의대회가 끝나고 같은 자리에서 범청학련 통일한마당이 이어지다.

의정부 미군기지 "캠프 카일" 정문 앞에서 범청학련, 노동자, 농민, 여성 등 통일선봉대원 200여 명은 "환경오염 미군기지 일방적 반환 규탄범시민대회"를 열고 미국 측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기지 오염정화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달 14일 폐막된 제9차 한미안보 정책구상회의(SPI)에서 반환예정기지 59개소 중 미국이 15개 기지에 한해 지하유류저장고와 사격장에 불발탄을 제거 하는 등 8개 항에서만 복구하기로 합의하고 오염정화 문제는

대부분 한국 측에 떠넘겼음.

14

8 · 15광복절에 '고령자' 로 분류하여 양심수로는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강태운 고문이 이날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다. 서울에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과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의원, 정성일 기관지팀장, 최준혁 대외협력일꾼이 마중갔으며 대구 · 경북 양심수후원회 한기명 회장, 윤보현 사무국장, 원영민 간사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함께 환영식을 갖다. 윤보현 사무국장 사회로 김은진 최고의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등 환영 말씀과 강태운 고문의 인사말이 있었음. 강 고문님은 비교적 건강하셨고 서울에서 사모님과 대구에서 따님, 사위들이 함께 마중했음.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과 한기명 대구 · 경북 양심수후원회장, 윤보현 사무국장 등은 지난 3월 노조운동과 관련 구속되어 대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구지하철노조 이원준 위원장을 면회하다.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선봉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500여 명이 모여 '8.14 반미반전 평화수호 결의대회' 을 열다.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대회사, 통선대원들의 문예공연, 장송회 한총련 의장의 결의발언 등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전쟁을 부르는 대북제재 전쟁책동 중단하라!' 는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통일선봉대원 등이 미대 사관 진격 투쟁을 벌이다. 대열은 마지막 정리집회를 하고 '2006 자주통일 결의대회' 가 진행될 연세대로 이동하다.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등 13,000여 명이 모여 통일연대 주최로 '8 · 15 자주통일 결의대회' 가 열리다. 정보선 문예위원장 사회로 50여 명의 어린이 통일선봉대원들의 노래와 몸짓 등 사전행사에 이어 이성호 연세대 총학생회장의 연세대에서 8 · 15결의대회를 열게 된 인사말, 한상렬 상임대표의 대회사, 민족 춤패 '출' 의 평택주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몸짓과 상황극, 한 · 미FTA 이후 피폐된 민중의 삶을 그린 극패 '걸판' 의 마당극이 있었으며 이어 통일선봉대 전 부문 대장들이 모두 등단하여 결의발언이 있었고 조준희 민주노총 위원장, 문경식 전농 의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음. 이어 이승호 한청 의장과 장송회 한총련 의장이 결의문을 함께 읽다. 결의문에서는 ○6 · 15공동선언 사수와 완전실현 ○미국의 전쟁위협 분쇄와 한반도 영구평화실현 ○한 · 미FTA 주한미군재배치 등 한 · 미동맹의 침략성과 예속성 심화시도 분쇄투장 등을 결의하다. 마지막으로 여러 노래패가 모두 무대에 올라 '하나되는 땅' 을 합창하다. 이 보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범청학련 결성 14주년 기념식 및 19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환영식' 이 있었고 '8 · 15 민주노동당 자주 평화 통일 결의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밖에도 야구장에서는 '여성통일한마당' , 대강당에서는 '한 · 미FTA저지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을 위한 2006 농민 통일한마당' 이 있었고 제1공학관 앞에서는 '공무원노조 통일선봉대 환영식 및 결의대회' 가 열렸음.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250여 명은 염창동 한나라 당사 앞에서 '반보수 한나라당 해체 결의대회' 를 열고 "미국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민생문제 외면하며 반민주 반인권 온갖 부정부패 비리정당은 미국으로 당장 떠나라."고 요구하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미 공화당 한국지부' '민생외면 수해 골프당' 이라고 쓴 임시현판을 불태우며 집회를 마치다.

15

혜화동 대학로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8 · 15 자주평화 범국민행진' 이 진행되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민주노동당 등 5,000여 명이 모여 한상렬 상임의장의 대행진 선언에 이어 풍물패를 선두로 30여 개의 각종 만장, 미 · 일의 군사패권주의와 침략책동을 풍자 · 규탄하는 내용의 각종 표현물을 갖고 대학로에서 종각까지 행진하다. 종각에 이르러 통일선봉대와 한총련 등은 '일본군국주의 우경화규탄 시민공동행동' 행사에 합류하기 위해 일본대사관 쪽으로 가고 노동자, 민주노동 당원 등은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진행된 '노동자 결의대회' 장으로 나누어 행진하다.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통일연대, 흥사단 등 130여 단체로 구성된 '대일행동네트워크' 주최로 '8 · 15 광복절 61주년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 규탄 시민공동행동집회' 를 열다. 독도수호대 민병성 운영위원 사회로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의 대회사,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양미강상임공동운영위원장 등 규탄발언, 서울 흥사단 박인주 대표의 성명서 낭독 등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고이즈미 얼굴을 그린 천을 불사르고 일본대사관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제지로 진격투쟁을 하다가 정리해산하다.

광화문 교보빌딩 앞 종로 거리에서 5,000여명이 모여 통일연대 주최로 '2006 자주 · 평화 범국민대회'가 열리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의 결의발언,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 문정현 신부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결의발언, 문예일꾼들의 문예공연 등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윤금순 전여농 의장 등이 함께 읽은 결의문에서 ○한 · 미FTA 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강력한반미반전 평화수호 투쟁 등 결의하다.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평통사와 양심수후원회 등이 함께하는 '제84차 반미연합집회'를 열다. 평통사 지방조직성원들이 많이 함께한 가운데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대회사, 평통사 일꾼들의 평택 대추리, 도두리 강제주택철거중단 촉구발언과 을지포커스연습 등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16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한 · 미합동 을지포커스렌즈 군사연습을 규탄하는 남 · 북 · 해외 여러 단체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범남본 이경원 사무처장 사회로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여는 말, 평통사 오혜란 미군문제팀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규탄발언, 장송회 한총련 의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권오창, 권오헌 대표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다. 공동성명 참가단체는 남측에서 22개 단체, 북측에서 11개 단체, 해외에서 32개 단체가 함께하다.

지난 2000년 북으로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김석형 선생님께서 14일 오후 5시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서거 했다고 이북의 노동신문보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후원회소식 178호 보심)

17

탑골공원 앞에서 제629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리다.

범민련후원회, 한국노총, 기자협회, 민족21 등이 함께하고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서울시 등이 후원하는 '제11회 통일꿈나무 금강산 글쓰기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전국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 청소년 423명과 인솔자 등 486명이 금강산 통일기행을 떠나다. 글쓰기대회는 2박 3일간 금강산에서 실천적 통일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기행을 마친 뒤 참가자들의 소감문을 받아 심사(심사위원장 임헌영)를 거쳐 시상하기로 하다.

18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소속단체 등 71개 시민사회단체는 '전쟁을 부르는 을지포커스렌즈훈련 중단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한청 이승호 의장, 평통사 정용진 미군문제팀 일꾼 등 중단촉구발언과 한총련 황유석 조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실천연대 부설 민권연구소 최희정 상임연구원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하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님의 누님께서 폐암으로 투병하시다 이날 오후 5시 12분 별세하셨습니다. 권 회장님의 누님이면서 어머니 역할을 하셨고 스승이면서 동지이기도 했던 권오순 베로니카 님의 빈소는 청량리 성바오로병원 장례식장에 모셨고, 21일 성북동성당에서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이한택 주교님 집전으로 장례미사를 올렸습니다. 장례미사에는 덕소성당 허영민 신부님이 강론을 하셨으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정현, 함세웅 신부님을 비롯한 100여명의 사제들과 많은 신도들이 함께했고, 충남 아산시 신창 선영에 모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심수후원회, 옴시롱감시롱 등의 회원과 여러 사회단체 대표들이 문상을 했습니다.

19

서울보증보험 본사 3층 강당에서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개입' 이란 주제로 반전토론회가 열리다. 기조발언에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 토론자로 다함께 김광일 운영위원 등이 나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배후자로 미국을 규탄하다.

20

통일부 신언상 차관은 정부종합청사에서 내 ·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북 수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 10만 톤, 시멘트 10만 톤, 철근 5천 톤, 덤프트럭 100대 굴착기 50대, 페이로더 60대 등과 모포, 응급치료용품 등 2,200억 원 상당을 제공

하기로 했다."고 밝힘.

명동 향린교회 3층 예배당에서 평통사 상임공동대표이며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이신 홍근수 목사님의 고희를 맞아 향린교회 주최로 '고희감사예배 및 출판기념회'를 열다. 신도, 지인, 사회단체성원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는 공저 홍근수, 『나의 걸음』과 부인 김영 목사의 『좋은 것을 깨는 여자』와 홍근수 목사의 묵상집 『일용할 양식』 두 권의 출판을 기념한 것이었음. 향린교회 홍창희 장로, 진관스님, 박형규 목사 등 축사와 이기형 시인의 축시, 한울출판사 정덕주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홍 목사의 인사말씀, 따님인 미국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총장이 감사의 말씀, 향린교회 청년들의 축사 등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축하꽃바구니와 김지영, 김호현, 장경욱, 이용준 회원 등이 함께 했습니다.

21

용산미군기지 5번 문 앞에서 통일연대와 범민련 등 11개 단체 공동으로 '을지포커스렌즈훈련 규탄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릴레이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다. 한상렬 대표의 여는 말 범민련 서울시연합 김규철 의장, 한총련 장송회 의장 등의 결의발언과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송현석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5번 문 맞은편에서 각 단체별로 8월 21일~9월 1일까지 농성에 들어가다.

옥인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주최로 '실천연대 부설 민권연구소 최희정 상임연구원 구속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낡은 잣대로 통일운동 활동가를 구속하는 야만행위를 규탄하다. 마치고 권오창, 윤한택 대표가 최희정 연구원을 면회하다.

파주군 임진각에서 추모연대, 계승연대, 통일연대, 민중연대 공동으로 '제17회 민족민주열사 추도기간'을 맞아 '이름 없는 열사들 추모제'가 열리다. 김명운 추모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의 여는 말, 한상렬, 임방규 대표 등 추도사, 장소익 씨 등의 '부네굿' 등이 있었음.

22

용산 국방부 앞에서 통일연대, 평통사, 사회진보연대 공동으로 '국방부의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로드맵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평통사 오혜란 미군문제팀장,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활동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 등 규탄발언과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는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 '민중의 소리'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178호 '후원회소식' 발송작업을 하다. 문상봉, 김영식, 안학섭, 조순덕, 박경순, 권오헌, 김환진 함께하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8차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다. 활동보고, 재정보고에 이어 ① 법인정관 개정문제 ② 여름수련회 문제(가을기행으로 대체) ③재정문제해결책 등을 논의하였음.

23

21일부터 시작된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 22일 경기-평택, 인천-부평구정역, 부산-김해공항, 춘천-강원대, 울산-삼성정밀화학공장 등 전국에서 실시되다. 이 연습은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1960년대부터 실시해 오던 '포커스렌즈연습'과 1968년 1.21사태 이후 이남 정부에서 실시해 오던 '을지연습'을 1976년부터 통합해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음. 주한미군 5,000명, 해외미군 3,000명 등 미군 8,000명이 동원되었음.

을지포커스렌즈 한 · 미합동군사연습과 관련 이북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위임에 의하여 미국의 이번 전쟁연습을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인민군 측은 앞으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는 데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라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24

탑골공원 앞에서 제630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리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권오헌, 강민조, 정종렬 상임공동대표 등은 열린우리당 김근태 대표를 면담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민주공원설립추진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하다.

2000년 9월 2일 송환되어 지난 14일 별세하신 비전향장기수 김석형 선생님 장례식이 16일 평양에서 있었다고 북의 통일신보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장례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사회단체들과 비전향장기수 일동 등이 조화를 보내왔고 고인의 유가족과 비전향장기수, 각 당위원회 위원들이 호상하였고 애국열사릉에서 영결식을 가졌으며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의 영결사에 이어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해가 안장되었다고 하다. 고인의 유족을 대표하여 손자 김철민이 결의발언을 했다고 하다.

서울고법 형사 항소4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 심리로 '통일전쟁론' 등 필화사건으로 1심에서 국가보안법 7조 5항 등을 적용받아 유죄선고를 받았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다. 강 교수의 모두진술과 검찰의 직접심문,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있었음. 강 교수는 모두진술에서 "검찰에서 제시한 전문가 감정평가에 대한 방어권과 질문권을 보장하라."라며 "학문자유의 본질에 대한 규정 없이 내린 1심판결이었기에 시간 여유를 갖고 공판이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하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기각하다. 이밖에도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박철언 전 의원, 이양호 전 국방장관,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 여부를 다음 공판으로 미루다.

25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성원 30여 명이 모여 '강제철거중단평택미군기지 재협상촉구 촛불문화제' 첫날 행사가 진행되다. 촛불문화제는 대추리, 도두리 지역 주택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방부에 철거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계속 촛불집회를 갖기로 하다. 이날 집회에는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인 '구엔 커트'씨도 함께하다.

26

2000년 9월 2일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의 서화전시회가 19일~25일까지 강원도 미술전람관에서 열렸다고 이북의 인터넷 '우리민족끼리'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전시회에는 "신념의 강자들인 신인영, 최선욱, 양정호, 김은환, 리경찬, 최하종 동지들이 창작한 195점의 서화작품들이 전시되었다."라고 하다.

서울 청계천 이스라엘대사관 맞은편 시티은행 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2,000여 명이 모여 '이스라엘의 레바논 즉각 철수를 위한 반전집회'를 열다. 향린교회 나성국 목자, 다함께 김덕엽 활동가,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의원 등 결의발언이 있었음. 또한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이라크파병이 부시의 전쟁지원으로 증명되었으며 레바논에 한국군을 파병할 것이 아니라 이미 파병된 자이툰부대와 아프가니스탄의 한국군을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하다.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평통사 등 소속단체 회원 150여 명은 '을지포커스렌즈중단촉구대회'를 열다.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대회사, 평통사 김종일 협동사무처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상훈 부위원장 등 결의발언과 한총련 장송회 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같은 자리에서 제4차 서울지역 반미반전월례집회가 있었음.

28

용산 철도웨딩문화관에서 비전향장기수 허영철 선생님의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출판기념회가 비전향장기수와 사회단체 성원 등 2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29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연대 주최로 '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최희정 연구위원 구속규탄 및 국가보안법폐지결의대회'가 열리다. 권오창 대표의 여는 말,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김승교 변호사,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등 규탄발언과 실천연대 일꾼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 등 사회단체는 '제60차 평화군축집회'를 열고 조건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촉구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다. 참가자들은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촉구서한에서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전쟁예비물자(WRSA) 저장시

설 유지비용, 증원군관리대운영비, 미군시설 경계지원 등이 편법 지원되고 있으며 카투사 인력비용, 기지로 제공된 토지와 군사시설 보호용 토지, 훈련장 등 한 · 미 공용토지에 대한 무상임대, 각종 세금의 면세 및 감세를 통한 지원을 한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측 지원은 미국이 요구한 주둔비의 75%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다.

30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와 '제17회 전국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추모기간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포스코건설노동자 고 하중근 열사 사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유가협, 민가협, 계승연대, 추모연대, 통일연대 등 소속단체 회원과 포스코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함께하여 한충목 집행위원당 사회로 권오헌 행사준비위원회 상임대표의 여는 말, 강민조 유가협 이사장, 한상렬 통일연대 의장, 포스코 건설노조 노동자 등의 규탄 발언과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이영 민가협 상임의장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읽다. 미치고 강민조, 임기란, 조순덕, 포스코 건설노조 대표 등 청와대에 항의서한전달하다.

비전향장기수 송환(1차) 6돌을 맞아 권오헌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는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1차 송환의 역사적 의미와 2차 송환의 당위성, 시급성을 강조하다. 1차 송환 비전향장기수 가운데 이종환(2001년), 윤용기(2001년), 신인영(2002년), 김종호(2003년), 강동근(2004년), 김석형(2006년)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으며 2차 송환 희망자 가운데 김태수(2003년), 김경선(2003년), 장광명(2003년), 정순덕(2004년), 정순택(2005년) 선생님이 별세하셨음.

인천항 제1부두에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정부의 첫 북 큰물피해 구호물자가 선적되어 북의 남포항으로 떠나다. 이날 선적된 구호품은 쌀300포, 긴급구호품1만 세트, 담요 2만장, 의약품300여 종이고 대한적십자사 임용훈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인도단원이 함께 떠나다. 부두에는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신언상 통일부 차관, 안상수 인청시장 등이 나와 구호품 보내기에 함께하다.

31

탑골공원 앞에서 제631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리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은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 양심수 구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건국대학교 대학신문 사회부 기자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 · 반민주 · 반통일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뷰를 하다.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회의실에서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기자회견'을 열다. 서울대 강명수 교수 등 각계인사 77명은 이학영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읽은 선언문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강제철거계획추진중단 ○김지태 위원장 석방 ○평택미군기지축소(주민들 집과 농지 보장)를, 주민대책위 · 평택범대위에게는 ○"단 한평도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주장을 유연하게 ○주민들의 생활터전문제를 별도의 의제로 한 정부와 협의검토 등을 제안하다.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 2주년을 맞아 730일째 촛불집회가 열리다. 평택주민 50여 명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희숙 경기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사회로 문정현 신부의 여는 말, 김택균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전농 문경식 의장 등 결의발언과 평택미군기지 재협상, 김지태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무대 차량에 올라가 노래를 함께 부르며 지칠 줄 모르는 투지를 불태우다.